

# 백용성 찬불가의 시대적 고찰

안승철\*

## • 목 차 •

- I. 서론
- II. 백용성의 시대 인식과 찬불가
  - 1. 백용성 찬불가의 창작 동기
  - 2. 3·1운동과 백용성의 불교변혁
- III. 한국 불교의 계승과 근대적 찬불가
  - 1. 찬불가에 나타난 근대화의 수용
  - 2. 찬불가에 나타난 불교 전통의 계승
- IV. 백용성 찬불가의 불교적 의의
  - 1. 보살도를 통한 백용성 이해
  - 2. 백용성의 보살도, 그리고 찬불가
- V. 결론

---

\* 중앙대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강사.

© 『大覺思想』 제37집 (2022년 6월), pp.143-176.

## 한글요약

백용성(白龍城, 1864-1940)은 조선말, 일제강점기에 걸친 전근대 시대에 활동하면서 향후 전개될 한국불교의 방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승려이다. 본 연구는 이런 조선말·일제강점기를 가로지르는 한국 전근대사회의 변혁 속에서 백용성의 중도적 자세가 가지는 의미를 특히 그의 찬불가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백용성의 전근대 시대에 대한 고민과 해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다. 그는 생애 초반에 한국 전통불교의 계승자이자 수호자로서 본인의 수행과 증득, 그리고 보림(保任)에 힘썼다. 또한 백용성은 시대적 사명으로서 3·1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투옥 과정에서 도시문화의 발달과, 특히 기독교의 포교전략을 참조할 계기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백용성이 찬불가 이외에도 한글역경, 청소년포교, 부인선방, 독립자금지원 등의 불교변혁가의 면모를 보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백용성이 서구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어디까지나 불교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일로써 이는 세속의 활동에서도 진제(眞際)를 추구하는 보살도의 실천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백용성은 수행자로서 세 번의 깨달음, 마지막 대각(大覺), 그리고 오후보림(悟後保任)을 통한 상구보리(上求菩提)를 실천했고, 이후 도심으로 나와 포교당의 설치 및 찬불가 창작 등의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면서 하화중생(下化衆生)을 구현하였다. 이렇게 백용성의 찬불가 창작은 그의 생애를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중도적 보살도로 이해하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 주제어

백용성, 찬불가, 전근대 한국불교, 창작 찬불가, 보살도,

## I. 서론

백용성 선사(白龍城 禪師, 1864~1940, 이하 백용성)는 조선말, 일제강점기에 걸친 전근대시대에 활동하면서 향후 전개될 한국불교의 방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동시대에 활동한 여러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있음에도 백용성의 존재감이 부각 되는 것은 1,7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의 전통성과 근대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그가 불교 본연의 중도적(中道的) 자세에 철저했기 때문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는 고루한 전통의 수호자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맹목적인 근대화의 추종자도 아니었다. 이 점이 그와 동시대의 불교계 인물들이 전통성과 근대성의 한 축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조선말·일제강점기를 가로지르는 한국 전근대사회의 변혁 속에서 백용성의 중도적 자세가 가지는 의미를 특히 그의 찬불가(讚佛歌)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백용성은 찬불가의 창작 동기에 대해서 여러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는 중국유람 등을 통해 서구 음악의 형식에 맞추어 작곡이 가능해지자, 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작사를 하여 찬불가를 만들었다. 이는 표면적으로 서구문화의 수용과 전통불교의 수호라는 이중과제를 훌륭하게 해결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용성이 찬불가를 창작한 동기이다. 이 동기란 바로 전근대 시대 한반도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불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해안과 고민에 의거한 것이다.

백용성의 전근대 시대에 대한 고민과 해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다. 그는 생애 초반에 전통불교의 계승자이자 수호자로서 본인의 수행과 증득, 그리고 보림(保任)에 힘썼다. 하지만 백용성은 시대적 사명으로서 3·1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에 의한 투옥 과정에서 도시문화의 발달과 같은 시대의 변화와 타종교, 특히 기독교의 포

교전락을 참조할 계기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백용성이 찬불가 이외에도 한글역경, 청소년포교, 부인선방, 독립자금지원 등의 불교변혁가의 면모를 보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불교적 내용물을 서구적 변화에 맞추어 빚어낸 백용성의 여러 활동들은 동도서기(東道西器)와 같은 동아시아의 근대적 지향 가치에 비추어 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는 불교적인 사상에 맞추어 백용성의 활동과 찬불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불교적인 사상이란 중도 사상에 입각한 보살도(菩薩道)이다.<sup>1)</sup> 백용성이 서구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어디까지나 불교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일로써 이는 세속의 활동에서도 진제를 추구하는 보살도의 실천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백용성은 임제종 전통의 계보를 이은 수행자로서 세 번의 깨달음, 마지막 대각(大覺), 그리고 오후보림(悟後保任)을 통한 상구보리(上求菩提)를 실천<sup>2)</sup>했고, 이후 도심으로 나와 포교당의 설치 및 찬불가 창작 등의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면서 하화중생(下化衆生)을 구현하였다.<sup>3)</sup> 이렇게 백용성의 찬불가 창작은 그의 생애를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중도적 보살도로 이해하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 II. 백용성의 시대 인식과 찬불가

### 1. 백용성 찬불가의 창작 동기

1) 한보광, 「월산선사의 중도선사상(2)」, 『대각사상』 36집, 대각사상연구원, 2021, pp.65-73. 중도사상의 입각한 보살도, 선수행 등 실천불교의 이해는 위의 연구를 참조.

2)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大覺證得과 點檢에 관한 연구」, 『대각사상』 11집, 대각사상연구원, 2008. 백용성의 대각증득까지의 과정과 오후보림에 대해서는 위의 연구를 참조.

3)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대중포교활동」, 『대각사상』 6집, 대각사상연구원, 2003. 백용성의 대중교화에 대해서는 위의 연구를 참조.

백용성의 찬불가 창작 동기는 다양한 맥락에서 접근될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면 타종교의 적극적인 포교, 사회활동에 대비하여 조선불교의 미진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생애가 산중선회기를 마치고 대중교화기에 들어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sup>4)</sup>

그때에 용성이 하동군 칠불선원의 종주(宗主)로 임명되었다가 세존 응화 2938년 신해년(1911)에 해임되었다. 같은 해 2월 그믐날에 경성에 들어가서 당시에 널리 보급된 것을 특별히 보니, 각 종교의 교당이 광대하고 장엄하고 화려하며 우뚝 솟아 하늘을 찌르고 항상 일요일이 되면 청중들이 교당에 가득 찼다. 오랫동안 자탄하기를, “외도의 교당은 종소리가 땡땡 울리면 수풀처럼 모여드는데 우리 불교는 적막하여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하였다.<sup>5)</sup>

이와 같은 백용성의 감상은 속담 48세 때의 일로 1911년의 일이다. 이때 백용성은 도심지에서 타종교들의 활발한 포교 활동을 보며 불교의 미진함을 위와 같이 개탄하였다. 이에 불교포교를 위해 3개월 정도 서울에서 신도의 집에서 머물면서 수백 명에게 포교하는 성과를 얻었다.<sup>6)</sup> 하지만 그의 첫 도심 포교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끝나고 말았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백용성이 말한 외도의 교당이 어떤 종교를 말하는가이다. 이는 교회, 성당 등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지만<sup>7)</sup> 왜 백용성이

4) 한보광, 위의 논문, p.53. 백용성의 생애는 한보광에 의하면 산중선회기와 대중교화기로 양분된다.

5) 백용성, 『백용성 대종사 총서』 1, 「용성선사어록(龍城禪師語錄)」, pp.350-351, “爾時에龍城이河東郡七佛禪院宗主로被任이러니世尊應化二九三八年辛亥에解任하고同二月晦日에入京城하야周流觀覽則各教教堂이廣大嚴麗하야聳出中霄하고每到空日이면聽衆이滿堂이러라. 自歎久之日外道教堂은鍾聲이錚錚然如林하되吾道는寂寞無人하니是誰之過耶”

6) 한보광, 위의 논문, pp.53-54. 백용성의 첫 상경 및 활동의 기록은 그의 나이 42세 때인 1905년 11월 망월사에서 법문이었다.

500년 동안 불교를 꺾박한 유교(儒敎)가 아니라 기독교 계통에 관심을 가졌는지가 문제가 된다.<sup>8)</sup> 이는 당시 불교도들이 유교보다 기독교가 불교에 대하여 적대적이거나 적어도 위협이 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용성은 실제로 위의 감상을 말하기 1년 전, 즉 칠불선원의 종주로 있을 때,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받았다.

대각응세 2937년(서기 1910년)은 내 나이 47세가 되는 때다. 하동군 지리산 칠불선원에서 종주로 있을 때다. 그해의 하안거 선방 대중은 60여 명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장로 호은과 응해 두 분의 선택이 계셨다. 마침 그해 5월 8일은 내 생일이었다. 점심을 먹은 뒤에 법당에 올라가서 종승을 거랑하였다. 그때 호은 장로가 청하여 말했다. “옛날에 우리 불교를 배척한 자는 정자와 주자를 능가할 자가 없었고, 현재에 더욱 심하게 배척하는 자는 예수교이다. 우리가 먼저 배척할 것은 없지만 한 번쯤 변론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 바라건대 선사는 변론하는 서책 하나를 저술하여 종교의 깊고 얕은 것을 알게 해주시오.”<sup>9)</sup>

이런 요청에 백용성은 『귀원정종(歸源正宗)』을 지어 불교, 특히 선종의 입장에서 유교와 기독교의 불교 공격에 대한 반론 및 그들 교리의 문제를 짚어냈다. 문제는 그가 지리산에서 활동하면서 서울, 즉 수도의 종교적 지형을 정확히 그리지 못한 점이다. 조선조 내내 불교를 억압할 정도로 위세가 등등했던 유교는 도심지 일반인의 삶에 생활양식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어떤 주체적인 활동의 명맥은 희미해져만 갔다. 백용성이 『귀원정종』에서 유교와 기독교를 동시에 비판하였지만, 막상 서울

7) 위의 논문, pp.56-57.

8) 백용성, 『백용성 대종사 총서』 7, 「기고문(寄稿文)」, p.59. 백용성은 “奈何도吾佛弟子가 出家信仰日로불어서 世人의 輕慢을受하나뇨 我와世人과 自體에안저보면 吾人도다當々한대 다뭇佛敎를信仰한다는罪로 世人의 輕慢을受케되니 아—나는그러한것은실타 急速히改良할必要가있다”고 하며 조선조 500년 동안의 불교박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9) 백용성, 『백용성 대종사 총서』 6,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12, p.449.

에 상경하였을 때 본 실상은 조선과 함께 허물어진 유교의 현실과 서구사상으로서 기세가 등등한 기독교였다.

백용성은 처음에 기독교가 서울에서 종교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고심하였던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찬불가 창작, 선농(禪農)불교 등 백용성의 불교 변혁가적인 면모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먼저 1911년 이후 그의 포교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1912년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의 개교와 그에서 개교사장을 맡은 일이다. 개교사장은 포교의 책임자 직책으로 1915년까지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하였는데, 특히 서울 시내에서 참선(參禪)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였으며, 3,000명의 신자를 만든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sup>10)</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제종, 참선이라는 단어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백용성의 포교는 어디까지나 임제선의 전통적 계승자로서의 활동인 점이다. 당시에 임제종 명칭을 사용한 것은 한일합방 가운데서 일본 조동종의 조선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일종의 거부표명으로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백용성은 무자화두(無字話頭)를 타파하여 대각을 얻은 선사로,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은 환성지안(喚醒志安, 1664~1729)의 임제정통을 이은 것이다.<sup>11)</sup> 그렇기에 백용성이 서울에서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의 개교사장을 맡은 것은 그가 전통적 불교의 계승자적 면모만을 보인 것이지, 아직 과감한 불교변혁가로서의 면모를 보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백용성은 대각사의 창건 및 포교재정 마련을 위한 북청에서의 금광 사업을 전개하였다. 금광 사업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기성의 불교계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산사업에 종사

10) 한보광, 「龍城스님의 중반기의 생애」, 『대각사상』 2집, 대각사상연구원, 1999, pp.19-21.

11) 백용성, 『백용성 대종사 총서』 1, 「용성선사어록(龍城禪師語錄)」, p.112. 백용성은 자신이 임제문하의 37세손임을 밝히고 있다. “余는臨濟下三十七代孫也라. 禪師遷化後距今一千四十七年也니先師在世時에天下衲僧이望風而歸之하여決擇諸佛正法眼藏하니從此로宗風이大振이라.”

하여 포교를 위한 정재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에서 백용성이 점차 전통 불교의 계승자로서의 면모에서 다양한 변화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백용성은 이처럼 1911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300명에게 포교한 이후,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 개교사장을 맡아 3,000명을 불자로 만드는 등의 성공적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는 아직 전통불교의 형태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그의 금광 사업 정도가 조금의 변화를 보인 것이라 평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백용성의 대중교화기의 초반부에는 전통불교의 계승자로서의 면모가 더 강했음을 알 수 있다.

### 2. 3·1운동과 백용성의 불교변혁

백용성이 전통불교의 계승자에서 불교변혁가로서 변모하는 데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3·1 독립운동에서 불교계 대표로 참여한 것이다.<sup>13)</sup> 그는 독립운동의 이유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옥중생활을 겪게 되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옥중의 모진 고통과 갖은 압박은 보통의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백용성은 옥중생활에서 이런 옥고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대각응제 2946년(기미년, 서기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서 발표(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의 대표 1인으로 경성 서대문 감옥에서 3년 동안 철창생활의 고단한 맛을 체험하게 되었다. 각 종교의 신자로서 동일한 국사범으로 감옥에 들어온 자의 수효는 대단히 많았다.

12) 한보광, 위의 논문, pp.35-37.

13) 김광식, 「白龍城의 獨立運動」, 『대각사상』 1집, 대각사상연구원, 1998; 「3·1운동과 불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47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백용성의 3.1독립운동 참여 및 불교계 전반에 대한 과정의 자세한 내용 참조.



각각 자기들이 신앙하는 종교 서적을 청구하여 공부하고 기도를 하였다. 그때 내가 열람해 보니 모두 조선글로 번역된 것이었고, 한문으로 된 서적은 별로 없었다.<sup>14)</sup>

백용성은 옥고에 대해 지난하고 힘든 수사를 마치고 바로 자신과 함께 수감된 민족대표 33인 중, 타종교인의 활동을 관찰하였다.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와 천도교 측 각각이 16명, 15명으로 불교 측은 백용성과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스님 단 2인이었다. 여기서 천도교도들이 청구한 종교 서적은 아마 『동경대전(東經大全)』이었겠지만, 이 당시에 한글 번역이 되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 백용성이 말한 조선글로 번역된 종교 서적은 기독교의 『성경』이었을 것이다.

백용성은 조선글로 번역된 타종교의 경전을 보고 받은 충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그것을 보고 곧 통탄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 이와 같이 큰 원력을 세우게 된 것이다. 오동나무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하가 가을이 되었음을 아는 것이다. 세계의 인류문화는 생존을 경쟁하고 경제의 파탄이 그 극에 도달하고 있는 시기에 누가 한문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허송하며 공부하겠는가. 비록 수십 년을 공부할지라도 한문을 모두 알고 죽는 자는 없을 것이고, 다 통달한다 할지라도 장래에는 무용의 학문이 될 것이니, 어디에 쓰겠는가. 현대철학·과학·천문학·정치학·기계학 등 모두 배울 것이 많은 시대에 한문만을 가지고 수십 년의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문명 발달의 장애물만 될 것이며, 또 수십 년 동안 한문 공부를 하여 위대한 문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종교의 진리는 알지 못할 것이며, 또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글을 좋아하나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조선의 글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녀 및 상·중·하가 보면 즉시 알 수가 있을 것이라서 보급하기 편리할 것이다. 이에 내가 출옥하면 즉시 동지를 모아서 경전을 번역하는 사업에 전력하여 이것으로써 불법의 진리를 연구하는 데 한 나침반을 만들 것이다.<sup>15)</sup>

14) 백용성, 『백용성 대종사 총서』 6,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p.449.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대철학·과학·천문학·정치학·기계학’이라 표현되는 서구문명과 관련된 인식과 남녀 및 상·중·하가 보편 즉시 알 수가 있는 경전의 필요성이다. 그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중교화를 위해 서울에 상주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전통적 불교의 형태 속에서 포교를 진행하였던 듯하다. 하지만 서구화가 진행되던 서울에서 한문은 뒤쳐진 학문에 불과했고, 불교 또한 한문의 옷을 입고 있는 한 뒤쳐진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옥고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단지 불법홍포에 대한 서원을 세우는 모습에서 백용성의 철인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3·1 독립운동 및 옥고를 치루기 이전 대중교화기 초반부의 백용성이 타종교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구자가 추론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 백용성은 『귀원정종』을 통해 이미 기독교 등의 타종교가 불교에 비하여 얼마나 미진한 종교인지를 밝혔으므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기독교 등의 타종교의 세가 미진해지고 정법안장의 종지(宗旨)가 명확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으리라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귀원정종』에 나타나는 백용성의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그로서는 이미 기독교가 사상적으로 극복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독교에 대한 백용성의 인식은 서울 대중의 것과는 괴리되었다는 점이다. 실지로 서울의 대중들에게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된 것은 위없는 진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기 보다는, 그들의 적극적인 구호 활동이나 의료, 복지 등의 사업을 통해 받은 보은 등인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과 아이 등, 기성의 유교적 세계관에서 대우받지 못한 계층에 대하여 기독교는 비교적 관참은 대우를 하였기에, 그들의 종교적인 심층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것이라 보인다. 특

---

15) 위의 책, pp.449-450.

히, 여성과 하층계급의 아이들에게 교육사업을 전개한 것은 전근대 기독교 포교 성공의 핵심적 이유 중 하나이다. 이처럼 교리에 대한 완전함이 이성적인 면이라면, 이런 기독교의 태도는 감성적 측면으로서 종교의 포교가 이성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백용성의 대중교회기초반의 전통불교 일색의 태도는 타종교들이 선취한 점에 있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

더군다나 사실 이성적인 면에서도 기독교는 1910년대 기독교청년의 발생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2.8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등, 일제강점기 하민족 문제를 해결할 정신으로 이미 발현되고 있었다. 다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국가들이 서구열강의 침입을 받은 바에 비해, 조선과 대만, 인도차이나반도의 동부지역은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는 차이가 있다. 이 경우 보통의 식민지에서 기독교가 침략 종교였던 것에 반하여, 일본의 침략을 받은 지역은 침략종교가 일본종교(신토와 불교)라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이미 일제는 조선에서 전통을 계승해온 임제종을 자신들의 조동종으로 교체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임제정통을 세우려는 노력이 전개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침략종교가 아닌 일본제국주의에 반하는 정신으로서 이해되기도 하였다.<sup>16)</sup> 다만 이는 아주 도식적인 이해이고 그 사이의 결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3·1 독립운동에 의한 옥고를 치르면서 백용성이 기독교의 포교 형태를 명확히 인식하여, 불교사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전달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이다. 그는 1921년 출소하자마자 거의 바로 삼장역회를 세워 불교 경전을 조선말로 옮기는 작업에 매진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22년에는 그가 옥고를 치를 때 매각된 대각사를 다시 창건하여 대각교를 창립했다. 대각교의 창립 이래, 그는 1923

16) 김민섭, 「1910년대 후반 기독교 담론의 형성과 ‘기독교청년’의 탄생」, 『한국기독교와 역사』 38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3. 이상의 기독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을 참조.

년까지 왕성한 번역활동을 전개하였고, 1925년에는 만일참선결사를 조직하였다. 이는 그가 삼장역회의 번역 활동을 통해 불교변혁가의 면모를 보이던 와중에 다시 전통불교의 계승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듬해인 1926년 백용성이 총독부에 건백서를 제출한 점에서 미루어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건백서란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조선불교 전반에 대처식육이 일반화되었음을 수정하고 청정계율의 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백용성이 불교의 변화를 이끌더라도 그 불교의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타협을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전통불교의 계승자로서의 태도를 취한 것이다.<sup>17)</sup>

백용성은 이처럼 3·1 독립운동 이후 1926년에 이르기까지 삼장역회를 통해서는 불교변혁가의 면모를 보였고, 건백서 제출, 선학원 건립 등의 활동을 통해서는 전통불교 계승자의 면모를 보였다. 나아가 1927년 그가 『대각교의식』을 간행함으로써 처음으로 찬불가 창작 활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각교 의식』에는 총 7곡의 곡이 수록되어 있지만 가사 외의 악보까지 수록된 것은 <왕생가>, <권세가> 뿐으로 <대각교가>, <세계기시가>, <중생상속가>, <입산가>의 다섯 곡은 『대각교의식』에는 가사만이 전해지고 있다. 나머지 다섯 곡의 악보는 김정묵의 『찬불가』<sup>18)</sup>에 수록되어 있다.<sup>19)</sup>

이런 백용성의 찬불가 창작에 대해서 백용성 연구의 권위자인 한보광은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개진하였다.

17) 한보광, 「龍城스님의 후반기의 생애(1)」, 『대각사상』 3집, 대각사상연구원, 2000, pp.10-63. 이상의 출옥 이후 건백서 제출까지의 연기와 전통 불교의 계승자로서의 면모는 위의 연구를 참조 요약한 것임.

18) 김정묵, 『찬불가』, 대한불교선전포교당, 1948.

19) 박범훈, 「불교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전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263. 박범훈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자료 수집과정에서 김정묵의 『찬불가』를 검토하면서 백용성의 총 7곡 찬불가 중 『대각교 의식』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5곡의 악보를 찾아내었다고 밝히었다.

백용성스님의 찬불가는 그가 독립운동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있을 때의 영향이 큼니다. 그는 형무소의 다른 종교인들이 보여주는 신앙생활에서 찬불가 창작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음악적 소양은 신부나 목사에게 배웠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sup>20)</sup>

위의 인터뷰는 아마 백용성의 찬불가 창작 동기를 명확히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백용성의 대중 교회기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찬불가 창작의 동기를 3·1 독립운동을 전후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장을 바꾸어 백용성 찬불가의 간략한 분석을 통해 그 창작 동기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Ⅲ. 한국 불교의 계승과 근대적 찬불가

#### 1. 찬불가에 나타난 근대화의 수용

백용성이 찬불가를 창작할 필요와 동기를 위와 같은 연기(緣起)를 통해 얻었다면, 다른 면에서 나이 오십에 가깝도록 산속에서 활동한 백용성이 어떻게 서구 음악 형식의 찬불가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그의 1907년에서 1908년에 걸친 중국순방에서 처음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광식은 백용성이 중국 순방기에서 서구 음악의 작곡의 소양을 키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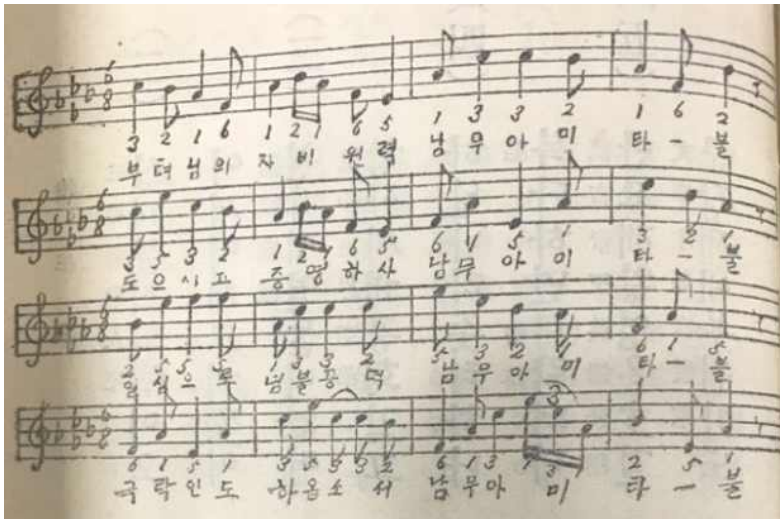
용성이 이처럼 서양음악 양식에 맞추어 작사·작곡을 하였다는 것은 국악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용성이 서양의 음악 기법을

20) 필자의 한보광 인터뷰, 2017년 7월 2일, 청계산 정토사.

수용하여 작사와 작곡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을 순방할 때 만났던 중국인 거사에게 음악적인 소양을 배운 인연에서 기인했다고 한다.<sup>21)</sup>

위 인용의 연장선에서 백용성의 『대각교의식』에 실린 <왕생가>에 ‘숫자보’를 활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악보는 『대각교의식』에 실린 <왕생가>의 원본 악보이다. 악보에서는 음표 아래에 숫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1> <왕생가><sup>22)</sup>



숫자보<sup>23)</sup>란 백용성의 중국 방문 시기에 현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

21) 김광식, 『용성』, 민족사, 1999, p.185.  
 22) 백용성, 『대각교의식』, 대각교중앙본부, 1927.  
 23) 박두리나, 「초급 해금교육을 위한 숫자보 활용 연구」, 『국악교육』 38집, 한국국악교육학회, 2014, p.114, “숫자보는 18세기 유럽에서 장 자크 루소(Rousseau, Jean Jacques)가 천주교 학생들의 음악 교육을 위해 처음 발명하였다. 숫자보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음정으로 나타내어 음악 지식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사

악보의 기입 체계이다. 이는 정식 음악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도 악보를 읽게 해주는 보조적인 기입 체계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중국인 거사에게 백용성이 서구 음악의 소양을 키웠다면 당연히 활용될 음악적 요소가 숫자보 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음악적 소양은 아마도 그의 행적에서 잊혀져 있다가, 한보광의 표현처럼 3·1 운동에 의한 옥중생활기에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보고 다시 활용할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백용성은 기독교 찬송곡을 충분히 의식해가면서 찬불가를 창작하였다. 이는 일종의 습작(習作)으로 볼 수 있으며, 백용성의 이런 찬송곡 참조는 <세계기시가>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또한 <중생기시가>와 <중생상속가>는 동요풍의 노래로 이는 이 두 곡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노래임을 명확히 하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백용성의 찬불가는 서구음악의 형식을 충실히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또한 실제 백용성은 찬불가의 창작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포교에 활용하였다. 특히 65세가 넘긴 고령의 나이에서 이어진 찬불가 포교활동은 극히 주목되는 것이다. 백용성은 찬불가 등의 음악을 활용한 포교활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京城府 鳳翼洞 二番地 大覺教會內에는 去 四月 十五日부터 大覺日曜學校를 設立하고 現在 男女學生 八十餘人을 教授하는데 顧問은 白龍城, 李仁杓, 李萬升, 高鳳雲, 崔昌雲, 校長은 李根雨, 教師는 李春城, 安壽吉 諸氏이며,

용한 오선보를 대신하여 학생들에게 손쉬운 음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악보는 유럽 전역에 퍼져 널리 이용되었으며 19세기에는 일본까지 전파되어 음악 교육에 사용되었다. 중국인 음악교육자 ‘친심공(沈心工)’이 1904년에 일본에서 숫자보를 중국으로 가져와 중국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숫자보는 ‘지엔푸(簡譜)’라고 불리며 중국의 근대 음악 교육의 중심으로 중국 전국 교육기관의 음악 교육 교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지금은 유럽 및 중국권 나라로 퍼져 아시아 전 지역에서 민족음악 교육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24) 안승철, 「한국 창작찬불가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p.46-70.

五月 六日에 第一回 學藝會까지 開催하여 하모니카(獨奏), 지수노래(獨唱), 동화(五色사십이), 유희(밝은달 獨唱), 판쓰, 빼니쓰, 요술, 연극 등을 觀衆의 喝采裡에 興行하였더라<sup>25)</sup>

위의 같은 활동에 대해 한보광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하모니카 독주, 지수노래 독창, 동화, 유희, 댄스, 빼니쓰, 요술, 연극 등으로 다채로웠던 것 같다. 그런데 당시의 대각사의 건물사정으로 볼 때에 이러한 행사는 아마도 법당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당에서 댄스까지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단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법당에서 오르간을 연주하고 하모니카를 불고, 댄스를 추고, 연극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시기였다. 이는 당시의 불교적인 정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성스님은 이를 시행하였으며, 일요학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그는 스스로 일요학교를 위하여 노래를 작사 작곡하여 오르간을 연주하였다고 한다. 또 대각일요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대각교 아동교과서』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65세의 노스님이 법당에서 오르간을 연주하고 어린이들과 노래를 불렀으니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sup>26)</sup>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불교에 기대어 생각할 때의 파격으로, 아마 이웃 종교에서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활동은 파격이 아니었을 것이다. 백용성은 이런 음악 등의 연예(演藝)를 통한 포교 활동을 한국불교에 최초로 도입한 인물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런 불교 변혁가로서의 면모를 주변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적어도 그 능력을 대중들이 따라잡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로의 위치에 오르기도 남았을 65세의 노승이 직접 건반을 치고 지도를 해야 했음은 백

25) 백용성, 『백용성 대종사 총서』 7, 「잡지(雜誌)」, p.118.

26)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대중포교활동」, 『대각사상』 6집, 대각사상연구원, 2003, p.77.; 다음의 기사와 병행 참조. 「노래하는 재미로 법회에 다녔지」, 『법보신문』, 1998년 6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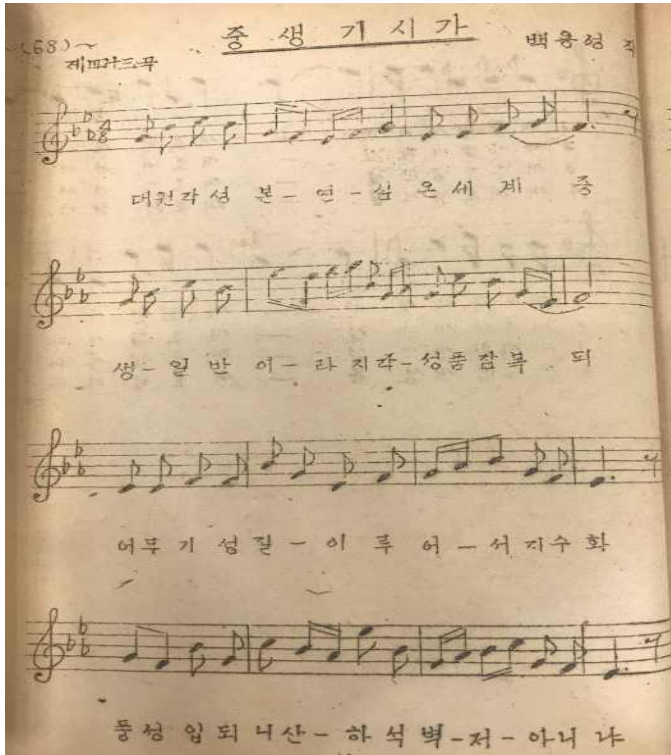
용성의 왕성한 포교 활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 동지적 역할을 수행할 주변의 인재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음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다.<sup>27)</sup>

## 2. 찬불가에 나타난 불교 전통의 계승

이처럼 서구 음악의 형식을 갖춘 찬불가의 창작과 어린이, 청소년 계층을 목표로 한 음악 포교활동은 불교변혁의 면모로서 충분히 파격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 찬불가의 가사를 볼 때, 불교전통의 사상으로부터 일보도 양보하지 않은 백용성의 사상적 면모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청소년 계층을 염두해두고 동요풍으로 제작된 <중생기사가>, <중생상속가>의 내용 중, <중생기사가>의 악보와 가사만 보면 다음과 같다.

27) 이도업, 「백용성스님의 대중포교활동」의 토론논평, 『대각사상』 6집, 대각사상연구원, 2003, p.85.; 「노래하는 재미로 법회에 다녔지, 『법보신문』, 1998년 6월3일. 백용성이 실제로 건반을 연주하면서 대중포교를 지도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 이도업의 경우 “용성스님께서 대각교당에 일요학교를 설립하신 것은 그의 나이 65세인 1928년 4월 15일이었다고 한다. 65세 때에 작사는 몰라도 작곡을 하고 오르간까지 연주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의문을 표한다. 하지만 1920년생이면서 대각일요학교에 참가한 적이 있는 석옥념 불자의 회고에 따르면 적어도 백용성의 지도하에서 어린이들이 찬불가를 익힌 것은 사실이다. 특히 대각사는 당시에 부인선방을 중심으로 주로 노인과 어른들이 활동하면서 일요학교에 어린이들이 절에 와 시끄럽게 굴면 야단을 많이 쳤지만, 백용성이 직접 지도하는 일이어서 크게 지적받지는 않았다고도 밝히고 있는데, 이를 미루어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대각일요학교는 당시의 대각사 신도들에게도 어색하게 받아들여진 일이며, 다만 백용성 스님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기에 불만을 드러낼 수 없었던 일이었던 듯하다. 이는 본문에서 말한 백용성의 왕성한 포교 활동에 동지적 역할을 수행할 주변 인재가 변변치 못했음에 대한 방증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백용성이 대각 일요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찬불가를 직접 지도하였다면 주변에 이를 도울 인재의 고갈로 인하여 직접 연주했을 가능성도 아울러 커진다. 참조.

〈악보-2〉 〈중생기시가〉<sup>28)</sup>



가사

1절 : 대원각성大圓覺性 본연심本然心은 / 세계중생 일반이라/지각성품知覺性稟 잠복潛伏되어 / 무기성질無記性質 이루어서 / 지수화풍地水火風 성립되니 / 산하석벽山河石壁 저 아니며

2절 : 팔식八識 바다 변동變動하여 / 지각知覺으로 환변幻變하니 / 육도중생六途衆生 이것일세 / 무기성질無記性質 세계 되고 / 지각분자知覺分子 중생 된다 / 대해大海바다 하나이나

3절 : 무량과도無量波濤 도도하여 / 물결마다 차별 잇듯 / 천진성품天眞性品 하나이나 / 염정연기染淨緣起 한량없어 / 국토차별國土差別 중생차별衆

28) 김정묵, 『찬불가』, 대한불교 정선포교당, 1959, p.68.

生差別 / 모양차별 심행차별心行差別

4절 : 무량무변無量無邊 하온 말씀 / 일구난설一口難說 부사의不思議네 / 세계 성립世界成立 되온 후에 / 중생들이 화생化生하니 / 마치 봄비 내려오니 / 독(鴆) 가운데 고인물이

5절 : 오래 되면 별레 낱듯 / 세계 성립 되온 후에 / 태란습화胎卵濕化 십이유생十二類生 / 곳곳마다 충만하여 / 삼계고해三界苦海 무량고초無量苦楚 / 해탈할 길 전혀 없다<sup>29)</sup>

<중생기시가>는 8분 음표(♪)가 네 개로 구성된 8분의 4박자로서 경쾌한 동요풍의 노래로<sup>30)</sup> 볼 수 있다. 이런 <중생기시가>의 경쾌한 동요풍의 음악적 특색은 이 곡이 어린이, 청소년 계층을 의식한 곡임을 알려준다.

그런데 <중생기시가>는 제목에서 보이듯이 육도윤회를 해매는 중생들이 대각원성의 본연심을 근본으로 하면서도 심식(心識)에 따라 유전하여 사생(四生)의 고통을 얻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는 다분히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일심이문(一心二門)의 논리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승기신론』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일심(一心)에 의지하고 있지만, 그 일심이 진리의 측면에서 인식될 때 진여문(眞如門)으로, 혹은 나고 죽는 분단생사의 측면에서 인식될 때는 생멸문(生滅門)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여기서 일심은 <중생기시가>의 1절에 나타나는 본연심과 진여문이라 할 수 있으며, 팔식(八識)바다는 생멸문이라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본래 깨달음의 자리로서 여래장(如來藏)인 진여문과 제8 아뢰야식(阿賴耶識)에 의한 윤회의 자리로서 생멸문이 모두 한마음에 의지되는 것인데, 이는 진여수연(眞如隨緣)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중생기시가>의 가사 속에서 파도의 이미지(Image)를 사용하는 것도 진여수연에 대

29) 백용성, 『백용성 대중사 총서』 2, 「대각교의식(大覺教儀式)」, pp.558-559.

30) 안승철, 위의 논문, p.64.

한 『대승기신론』상의 바다와 파도의 비유에서 빌려 온 것이라 할 수 있다.<sup>31)</sup>

백용성은 1930년 67세일 때, 사상적 대표작인 『각해일륜(覺海日輪)』을 저술하였다. 거기서 표현되는 그의 대표 사상인 대각은 『대승기신론』의 여래장(如來藏)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sup>32)</sup> 이런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그는 『대승기신론』과 같은 논서의 고상한 철학을 그대로 노래 가사로 녹여낸 것이다. 즉 불교적인 진리에 곡조를 붙였을 뿐이지, 어떤 흥미 위주의 통속적 내용을 멀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생기시가>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진여문보다는 생멸문에 의한 육도윤회의 고통을 겪는 중생의 적나라한 표현에 있다. 이는 아마도 불교의 초입이라 할 수 있는 고성제(苦聖諦)를 다른 표현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어린이,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불교신앙을 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인간 세상의 고통을 말함으로써 불교적인 소양을 키울 수 있으리라 백용성은 판단했던 듯하다.

특히 이는 이런 노래가 실제로 불리었을 대각 일요학교의 성격을 고려할 때 명확해진다.

이러한 대각 일요학교의 설립은 단순한 일요학교라고 하기보다는 대각교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도제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단순한 일요학교 였다고 한다면, 교과서를 개발하고 찬불가의 가사와 작곡을 직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미 대각교의 교세를 확장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하여 대각교의식집을 저술한 바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요학교의 설립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33)</sup>

31) 지안, 『大乘起信論 講解』, 계창, 2007, 「해제」; 『대승기신론』에서 진여수연에 대한 바다와 파도의 비유는 같은 책, p.76 참조.

32) 한보광, 「용성스님의 후반기의 생애(2)」, 『대각사상』 4집, 대각사상연구원, 2001, p.35.

이처럼 백용성이 대각일요학교를 도제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관으로 인식했다. 즉 백용성은 단순히 대중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잡기(雜技)로서 찬불가를 창작하지 않았으며, 그런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음이 당연하다. 장단은 경쾌한 동요로 즐거울지라도 그 내용이 인생고락의 깊은 고뇌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사라면, 이를 부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불도의 길을 걷게 하는 필연으로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리 백용성의 찬불가가 변혁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불교근본정신의 고취를 위한 방편이었음이 확실해지는 것이다.

#### IV. 백용성 찬불가의 불교적 의의

##### 1. 보살도를 통한 백용성 이해

이처럼 백용성은 전통불교의 계승자이면서도 불교변혁가로서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 측면이 괴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특히 불교변혁가로서의 행보로 주목되는 찬불가 창작의 사상적 배경이 불교 전통에 입각하고 있음을 전 장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렇기에 이러한 전통불교의 계승자이자 불교변혁가로서의 백용성을 연구자는 중도적 보살도의 실천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보살(菩薩, Bodhisattva)을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 공통하여 정의하자면 ‘불타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는 자리(自利)의 측면에서 정의이고, 대승불교는 이보다는 이타(利他)에 강조를 하여 보살

33)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대중포교활동」, 『대각사상』 6집, 대각사상연구원, 2003, pp.77-78.

을 자리아타원만(自利利他圓滿)으로 정의하게 된다.<sup>34)</sup> 자리아타원만은 풀어서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위로는 보리(불지, 佛智)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대중에게 익숙한 보살의 정의이다.

백용성은 산중선회기 동안 대각을 성취하여 상구보리를 이루었고, 대중교화기를 통해 포교, 번역, 특히 찬불가를 짓는 등의 하화중생을 실천하였다. 이는 백용성이 자리와 이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적 자세를 취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중도적 자세란 단순히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절인연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펼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동적인 자세를 말한다. 백용성의 경우 그가 대중교화기에 접어들어 삼장역회를 조직하여 불교변혁가로서의 길을 걷게 된 이후에도, 선풍(禪風)의 진작을 위하여 만일참선결사를 조직한다던가, 총독부에 2차에 걸쳐 건백서를 제출하여 대처식육의 비불교적 요소를 배척하는 전통불교의 계승자적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능동적인 자세를 알 수 있다. 그는 하나의 역할에만 몰두하여 주변을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본래 보살도에서 상구보리가 먼저인가, 아니면 하화중생이 먼저인가는 꽤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사항이며, 현대에도 많은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백용성의 경우 그의 생애가 산중선회기와 대중교화기로 명확히 양분되기에, 상구보리를 먼저 실천하고 하화중생을 다음에 실천하였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대중교화기의 불교변혁가로서의 면모를 나타낼 때도 시절인연의 필요에 따라 산중선회기에 익힌 전통불교의 계승자적 면모 또한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점에서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에 반드시 선후(先後)가 정해진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산중선회기의 후반에 『귀원정중』을 지은 것 또한 일종의 하화

34) 平川彰, 『인도불교의 역사』 상, 민족사, 1989, pp.278-279 참조.

중생의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심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독교의 불교 배척이 산중에 이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 『기원정종』임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초심자가 기독교 등의 타종교의 교리에 의해 불교신앙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로서 지어진 것이다. 이런 백용성의 시대 인식과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중도적으로 실천한 것은 전근대 시대 한반도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해 불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백용성의 고뇌의 깊이와 혜안의 밝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다.<sup>35)</sup>

## 2. 백용성의 보살도, 그리고 찬불가

### 1) 백용성의 상구보리와 음악적 요소

마지막으로 백용성의 중도적 보살도의 실천을 음악적으로 구체화하여 밝히고자 한다. 백용성은 그의 생애 전반기인 산중선회기에서 세 번의 깨달음과 마지막 대각을 성취한 이후, 오후보림을 통해 상구보리의 자세를 보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깨달음과 음악의 관계다. 먼저 다라니 수행의 경우 그가 외운 다라니는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와 육자주(六子呪)라고 하는데, 육자주의 경우 ‘옴 마니 반메 흠’으로서 매우 짧기에 음울적 성격을 부여하여 외우기 어렵지만, 천수다라니의 경우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長句大陀羅尼)라는 다른 이름처럼 육자주에 비해 굉장히 긴 주문으로 주력 수행으로 외울 때 음울적인 요소가 반

35) 김광식, 「백용성 연구의 회고와 전망」, 『대각사상』 16집, 대각사상연구원, 2011, p.51. 이상과 같은 보살도에 입각한 백용성에 대한 이해는 김광식의 다음과 같은 제안에 대한 나름의 답이다. “용성 연구에 있어서 용성한 개인의 분석, 조명에만 신경을 쓰는 것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용성이 갖는 역사성, 사회성을 더욱 강조하고 유의하는 입장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용성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용성은 다양한 행적으로 인하여 선사, 율사, 개혁가, 독립운동가 등으로 불리는 바 이를 통합하는 개념이 요청된다. 이럴 경우 보살의 개념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드시 들어가게 된다.<sup>36)</sup> 특히 백용성은 주력수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문을 지송하되 네 가지 법을 행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주문을 고성으로 외우되 그 외우는 놈을 돌이켜 볼 것이며, 하나는 입과 혀를 움직이지 말고 다만 생각으로 주문을 생각하되 이 생각하는 놈을 돌이켜 볼 것이며, 하나는 주문을 외울때에 범서의 음 자를 관하되 그 음 자가 달과 같이 뚜렷하고 밝은 것을 관해야 할 것이다.<sup>37)</sup>

여기서 백용성은 다라니를 외우더라도 처음에는 고성, 즉 큰 소리 혹은 높은 소리로 외울 것을 말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음(音)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외우는 놈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말하듯이 화두참구와 비슷한 형태로 다라니를 외울 것을 말하고 있다. 본래 염불선(念佛禪) 계통에서 ‘염불하는 이 누구인가(念佛者是誰)’라는 일종의 염불과 화두의 종합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용성은 ‘진언하는 이 누구인가(眞言者是誰)’라는 형식으로 주력 수행을 선수행의 면모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력 수행의 첫 시작이 심상(心想)의 집중이 아니라 입으로 노래하는 구칭(口稱)에 있음은 물론이다.

더불어 백용성이 무자화두를 타파하여 얻은 2, 3차 깨달음과 마지막 대각 또한 각각의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오도송(悟道頌)을 통해 음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백용성은 2차, 3차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7언 절구의 형식으로 노래<sup>38)</sup>를 하였는데, 절구란 한시(漢詩)의 형식 중 하나

36) 윤소희, 「천수다라니 범문원리와 한·중·일 율조 비교」, 『국악원논문집』 44집, 국립국악원, 2021. 천수다라니의 음율적 성격에 대해서는 위의 연구를 참조.

37) 백용성, 『백용성 대종사 총서』 2, 「각해일륜(覺海日輪)」, p.343.

38) 다만 3차 오도송의 경우 한 구에 7자의 7언을 지키지만, 4수가 아니라 8수로 이루어져 있다.



로 매우 엄격한 음율과 기승전결의 내용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더군다나 음율에 있어서는 7자를 넘어갈 수가 없기에 한 문장을 매우 함축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는 고도의 작사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백용성의 마지막 깨달음인 대각을 노래한 오도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금오산 천년의 달이요  
낙동강 만 리의 물결이구나!  
고깃배는 어디로 갔는가?  
예전대로 갈대꽃밭에 머무는구나!<sup>39)</sup>

이는 오언절구의 형식으로 백용성의 시심(詩心)이 깊음을 바로 알 수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절구 형식의 오도송을 짓는 것은 자구(字句)만을 헤아리는 한학(漢學)으로는 불가능하고, 시작(詩作)은 본래 음악적 재능과 매우 깊게 맞는 것이라 볼 수 있기에 백용성의 음악적 재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음악적 재능이 아니라 선승(禪僧)의 깨달음을 시에 녹여낸다는 점에서 사상적으로도 백용성이 독보적인 경지에 올랐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 2) 백용성의 하화중생과 찬불가

오도송을 지음으로써 불교 사상을 음악적으로 승화하는 백용성의 음악적 재능과 능력은 이후에 한시의 형식에서 벗어나 서구적인 형식으로 찬불가를 작곡할 때도 유감없이 발휘되는 바였음은 위의 <중생기시가> 가사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여기서 특히 보살도로서 주목되는 것은 백용성의 후진양성을 위한 찬불가 창작이다.

백용성의 후진양성은 선사로서 선객(禪客)들과 법거량(法擧量)을 하고 재목이 있으면 인가(認可)하는 승단의 일을 넘어서 위, 아래 없는 남너

39) 백용성, 『백용성 대종사 총서』 1, 「용성선사어록(龍城禪師語錄)」, p.16, “金鳥千秋月, 洛東萬里波. 漁舟何處去, 依舊宿蘆花.”

사부대중 전체의 교화에 있었다. 특히 찬불가를 창작하던 당시에 쓰여진 『각해일륜』에 대각교 포교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대각의 진리를 천하의 대중에게 선전하여 미신을 타파하고 정도로 행하게 하며,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보거든 내가 잘되는 것과 같이 즐거워하며, 대각성전에 대각께 공양을 올리거든(聖供) 천하대중과 일체 유정 동물이 다 삼계고해를 해탈하고, 낱알이 대각성인이 되기를 원할 것이며, 가난과 질병(貧病)을 구제하여 줄 것이니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닦으면 복이 되는 것이다.<sup>40)</sup>

대각교의 포교란 ‘천하대중과 일체 유정 동물이 다 삼계고해를 해탈하고, 낱알이 대각성인이 되기를 원하기’에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화두참구를 실천할 수 있는 상근기의 납자(衲子)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대중을 대각성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대각교라는 것이다. 이는 다시 대승보살도의 정의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과 대응한다.

대승은 보살의 가르침(보살승)이다. 그 위에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불의 소질이 있다고 믿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싶다는 원(願)이 생긴다. 그리하여 대승의 교리에 ‘利他’가 필연적인 계기로서 등장한다. 이로부터 ‘일체중생에게는 모두 佛性이 있다’는 교리가 발전한다.<sup>41)</sup>

특히 백용성이 『대승기신론』의 여래장 사상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대각사상을 구성했음은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은데, 여기서 여래장은 불성과 동의어로서 결국 백용성의 대각사상과 대각교 포교는 곧 보살도로 연결될 필연적 까닭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시 또 주목되는

40) 백용성, 『백용성 대종사 총서』 2, 「각해일륜(覺海日輪)」, p.36.

41) 平川彰, 앞의 책, p.279.

것은 천하 대중에서도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백용성의 인식이다. 조선 말에 어린이, 청소년은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되었다. 백용성이 찬불가를 창작하여 어린이, 청소년포교에 나선 1920년대에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1920년 김기전은 <장유유서의 말폐>라는 글에서 온전한 하나의 사람을 자식이다(子)라, 어리다(小)라, 어리석다(愚)라, 신분이 미천하다(賤)라는 등의 부스러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凌壓하는 폐해가 독소가 되어 세상을 병들게 했다고 지적하였다. 장유유서의 말폐로 인해 소년의 인격을 말살하고 무시하는 것이니 유교 윤리에 의해 신하, 여자, 젊은이, 자식, 천민들이 선천적으로 무시되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삼강오륜이라는 명분 아래 이를 악용한 독소가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도덕을 세워 어린이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sup>42)</sup>

이처럼 조선말, 일제강점기 초기의 어린이, 청소년은 인격적으로 말살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다른 종교들은 적극적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보육을 통한 포교에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 이런 어린이, 청소년포교의 활동은 미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광식의 조사에 따르면 1920년대에 불교계 안에서 소년회(단, 부)가 23개, 소녀회가 2개, 강습소(회)가 2개, 일요학교가 17개가 설치되었다고 한다.<sup>43)</sup> 다만 조선불교 중앙 차원에서 조직한 대표적인 조선불교소년회가 1926년 6월에 설치되어 1928년 중반에 이르러 활동이 멈췄으며, 이를 능가하는 불교 소년 단체의 활동은 1930년대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sup>44)</sup>

42) 이지원, 「일제시기 어린이날 기념 문화를 통해 본 어린이 인권 인식」, 『歷史敎育』 160집, 역사교육연구회, 2021, pp.278-279.

43) 김광식, 「근대불교의 청소년 포교와 조선불교소년회」, 『대각사상』 8집, 대각사상연구원, 2005, pp.24-25.

그에 비하여 백용성에 의지하여 운영된 대각 일요학교는 1928년부터 큰 변화가 없었다면 아마도 1936년에 대각사를 범어사의 경성포교당으로 등록하고서도, 그 후 몇 년간 더 지속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왜냐하면 1930년에 대각 일요학교에 참여했던 이의 증언과<sup>45)</sup> 범어사에 등록된 이후에도 대각사가 포교비를 지불받은 등의 행적은 그의 대중 교화 활동이 멈추지 않았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대각사가 범어사 경성포교당으로 등록된 이후에, 조선예술협회가 조직되어 음악, 무용, 강연이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이 주목된다.<sup>46)</sup>

그렇다면 조선불교의 중앙차원에서 조직한 조선불교소년회가 2년여의 짧은 활동 끝에 그 수명을 다한 것에 비하여, 백용성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대각 일요학교는 어떻게 계속 지속될 수 있었을까? 이는 백용성의 어린이, 청소년의 입장에서 불교를 조직하여 포교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지금 전해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한국 최초의 어린이, 청소년 불교 교재인 『대각교 아동교과서』를 편찬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찬불가 창작가였다. 백용성 이전에도 권상로, 조학유 등이 찬불가를 제작하였으나, 이들의 찬불가 중에서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찬불가는 발견되지 않는다.<sup>47)</sup> 조선불교소년회가 사회 계몽적인 활동에만 매진하여 실지로 불교적인 교양을 어떻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함양시켰는지가 불분명한 와중에 백용성의 대각 일요학교는 어린이, 청소년의 시각에 맞춘 포교 활동에 의하여 자생적인 생명력을 갖고 유지되었으며, 이것이 대각 일

44) 위의 논문, p.32.

45) 주 24)의 기사 참조.

46) 한보광, 「龍城스님의 후반기의 생애(2)」, 『대각사상』 4집, 대각사상연구원, 2001, pp.57-58.

47) 안승철, 앞의 논문, pp.36-45. 다만 권상로의 찬불가 중 <학도권면가(學徒勸勉歌)>는 학도라는 표현과 그 가사의 내용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1935년 작사임으로, 백용성의 어린이, 청소년 찬불가에 비하여 10년 가까이 늦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학교가 수년에 걸쳐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백용성이 찬불가 수(數) 곡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창작한 것은 그의 뛰어난 혜안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어린이, 청소년포교에 대한 혜안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을 인정하는 보살도로서 당시 사부대중 중에서 가장 인권을 인정받지 못하던 어린이, 청소년 계층을 특별히 돌보아야겠다는 가장 밑으로의 활동, 즉 하화중생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백용성의 후진양성은 선승으로서 남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최하계층인 어린이,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왜냐면 상근기의 남자이든, 글조차 깨치지 못하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어린이이든 모두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들을 대각 성인으로 만드는 것이 백용성 대각교의 포교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용성의 찬불가 창작은 하화중생의 보살도 실천 중에서도 중생 근기에 맞는 방안을 적절히 활용한 뛰어난 사례라 할 수 있다.

## V. 결론

이상의 내용을 통해 백용성의 찬불가 창작의 동기를 살펴보고, 결국 그의 창작 의도는 보살도의 실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백용성은 상경한 이후 도심 포교에 있어서 전통적 불교의 외형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역경, 교육, 그리고 찬불가 창작 등의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통적 불교의 정신을 새로운 형태에 이식하는 것으로서 그가 불교의 근본정신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한 바가 없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백용성이 이처럼 불교의 근본정신은 살리되 과감한 변혁을 시도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성취한 상구보리의 대각을 상, 하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한 하화중생의 포교를 위한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백용성의 불교변혁가로서의 면모를 진리의 추구하고 중생의 구제양자를 성취한 중도적 보살도라 볼 수 있다. 특히 당시까지 인권이 있는 존재로 인식되지 못한 어린이, 청소년 계층에게 자신이 창작한 찬불가를 통해 불교를 익히게 하려 한 점에서 이런 백용성의 보살도가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저서>

- 김광식, 『용성』, 민족사, 1999.  
 김정목, 『찬불가』, 대한불교 정선포교당, 1948.  
 백용성, 『대각교의식』, 대각교중앙본부, 1927.  
 \_\_\_\_\_, 『백용성 대중사 총서』,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지 안, 『大乘起信論 講解』, 계창, 2007.  
 平川彰, 『인도불교의 역사』 상, 민족사, 1989.

### <논문>

- 김광식, 「白龍城의 獨立運動」, 『대각사상』 1집, 대각사상연구원, 1998.  
 \_\_\_\_\_, 「근대불교의 청소년포교와 조선불교소년회」, 『대각사상』 8집, 대각사상연구원, 2005.  
 \_\_\_\_\_, 「백용성 연구의 회고와 전망」, 『대각사상』 16집, 대각사상연구원, 2011.  
 \_\_\_\_\_, 「3·1운동과 불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47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김민섭, 「1910년대 후반 기독교 담론의 형성과 ‘기독교청년’의 탄생」, 『한국기독교와 역사』 38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3.  
 박두리나, 「초급 해금교육을 위한 숫자보 활용 연구」, 『국악교육』 38집, 한국국악교육학회, 2014.  
 박범훈, 「불교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전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안승철, 「한국 창작찬불가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윤소희, 「천수다라니 범문원리와 한·중·일 율조 비교」, 『국악원논문집』 44집, 국립국악원, 2021.  
 이도업, 「‘백용성스님의 대중포교활동’의 토론논평」, 『대각사상』 6집, 대각사상연구원, 2003.  
 이지원, 「일제시기 어린이날 기념 문화를 통해 본 어린이 인권 인식」, 『歷史教育』 160집, 역사교육연구회, 2021

- 한보광, 「龍城스님의 중반기의 생애」, 『대각사상』 2집, 대각사상연구원, 1999.  
\_\_\_\_\_, 「龍城스님의 후반기의 생애(1)」, 『대각사상』 3집, 대각사상연구원, 2000.  
\_\_\_\_\_, 「龍城스님의 후반기의 생애(2)」, 『대각사상』 4집, 대각사상연구원, 2001.  
\_\_\_\_\_, 「백용성스님의 대중포교활동」, 『대각사상』 6집, 대각사상연구원, 2003.  
\_\_\_\_\_, 「백용성스님의 大覺證得과 點檢에 관한 연구」, 『대각사상』 11집, 대각사상연구원, 2008.  
\_\_\_\_\_, 「월산선사의 중도선사상(2)」, 『대각사상』 36집, 대각사상연구원, 2021.

<신문기사>

「노래하는 재미로 법회에 다녔지」, 『법보신문』, 1998.6.3.



## Abstract

### A Historical Study of Baek Yong-Sung's Buddhist Hymn

Ahn, Seung-chul  
(Chung-Ang University Part-Time Instructor)

This article is about a historical study of Baek Yong-sung's Buddhist Hym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his Buddhist Hymn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historical and social positions of Baek Yong-su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which he lived.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his motivations for Buddhist hymns and the meaning for Korean Buddhism.

Baek Yong-sung's insights and solutions for the Korean Buddhism at a particular tim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re; translation of Buddhist scriptures into Hangul, known as Korea's own letters; Youth missionary on Buddhism; Establishing meditation centers in downtown; Sunday Buddhist Gatherings for a sermon; and etc. In order to run the above methods, it is critical to think about the cultural power which can highly affect people to have a keen interest in Buddhism, rather than other religions.

For these reasons, Baek Yong-sung composed several Buddhist hymns although he is neither a professional musician nor a music composer. The reason why he had to compose Buddhist hymns himself was that he was well aware of the power of music that can move people and was able to actually carry out those ideas into concrete materials.

Key words

Baek Yong-Sung, Korean Buddhist Hymn, A Composed Buddhist Hymn, Korean Buddhist Hymn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 Buddhist Music

논문투고일 : '22. 04. 29. 심사완료일 : '22. 05. 25. 게재확정일 : '22. 05. 25.